영화와 음악의 만남, 담양에서 즐기는 '시네콘서트'

6월 13~14일 담빛예술창고… 고전영화·재즈·금관앙상블까지 풍성한 무대

담양군문화재단이 오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간 담빛예술창고에서 영화와 생생한 연주가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 '시네콘서트'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영화와 라이브 연주를 결합해, 한층 더 풍부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시네콘서트'는 대형 스크린으로 영화 장면을 감상하며, 전문 연주자들이 현장에서 영화음악을 직접 연주하는 형식의 공연이다. 영상의 감성과 음악의 생동감이 어우러져 관객에게 새로운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

13일에는 명작 〈오즈의 마법사〉가 상영된다. 이 자리에는 한국대중음악상 재즈보컬 부문 수상자인 남예지와 'Old Songs, 틈'이 함께 무대에 올라 '오버 더 레인보우'를 비롯해 '가시리', '꽃타령' 등 한국적 정서를 재해석한 재즈 곡들을 들려준다. 익숙한 이야기에 감각적인 음악이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14일에는 CGV 단독 개봉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음악 영화 〈하와이연가〉가 상영된다. 이 작품은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연, 세계적 뮤지션 Keola Beamer,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예수정 등이 참여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유구한 역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영상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영화 상영 후에는 이진영 감독과의 대화도 마련되어, 관객과의 깊이 있는 소통이 기대된다.

같은 날 열리는 음악 공연도 눈길을 끈다. '코리안아츠 금관앙상블'은 디즈니·지브리 애니메이션 등 인기 영화의 OST를 11인조 금관악기 구성으로 선보이며, '코리아챔버앙상블'은 지역 청소년으로 구성된 담빛스트링앙상블과 협연해 현악 중심의 영화음악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6월 10일까지 담양군문화재단 누리집www.dycf.or.kr)과 공식 SNS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다. 사전 예약자 중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돗자리 대여, 수제맥주 등 소소한 즐거움도 제공된다. 또한 양일 오후 3시부터 담빛예술창고 앞마당에서는 먹거리 부스, 체험 프로그램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함께 운영된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이번 시네콘서트를 통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소년과 지역 예술인의 참여 기회를 넓혀 담양의 문화 생태계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로서의 가능성도 함께 키워나갈 방침이다.

자세한 공연 일정과 프로그램 안내는 담양군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061-380-824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담양/이종옥 기자

'도심 속 힐링'… 2025 충장 라온 페스타 개막

13~14일 충장로 일원서 플리마켓·K-스타 챌린지 등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이달 13~14일 충장로 일원에서 '2025 충장 라온 페스타' 개막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축제의 서막을 알리는 개막식은 '도심 속 힐링'을 주제로 13일 오후 8시 충장로1가 주차장에서 열린다. 감성 캠핑 콘셉트의 펍을 조성, DJ 공연 등 다양한 공연과 함께 전문 코스튬 퍼포먼스 팀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라온 코스튬 카니발'이 도깨비 골목과 충장로 우체국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골목 곳곳에서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된다. 충장로 일원 7개 장소를 순회하며 미션 게임을 수행하는 '충장 미션 어드벤처',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충장 플리마켓',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는 시민들이 끼를 펼치는 'K-스타 챌린지' 등이 펼쳐지며, 지하상가에서는 '지하상가 문화의 날'도 열려 플리마켓과 체험 부스 등 볼거리도 함께 즐길 수 있다.

임택 동구청장은 "라온 페스타는 충장 상권 상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행사다"면서 "앞으로도 충장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장 상권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지난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라온 페스타'는 충장로와 지하 상점가의 소비 촉진과 상권 내 방문객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즐거운(라온)'이라는 이름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11월까지 충장로와 지하상가 일대에서 선보인다.

/김명수 기자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수묵가' 골라주세요

17일까지 AI가 만든 밴드·발라드 두 버전 곡 선정 이벤트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사무국은 오는 17일까지 8일간 인공지능(AI)이 밴드와 발라드로 제작한 두 가지 버전의 '수묵가' 중 하나를 대중 투표로 선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를 바라는 국민은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한 뒤, 인공지능이 제작한 '수묵가'의 밴드 버전과 발라드 버전 두 곡을 모두 감상하고, 이벤트 페이지(https://naver.me/F5aQ2mZO)에서 마음에 드는 버전에 투표하면 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과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한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남기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전통 수묵화의 현대적 해석을 대중과 함께 만드는 참여형 이벤트로, 인공지능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시도여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사무국장은 "인공지능과 전통 예술의 만남이라는 색다른 시도에 많은 국민이 직접 참여해 전통 수묵에 대한 흥미와 애정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제가는 비엔날레 홍보에 적극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전통과 현대 수묵을 아우르며 그 문화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장으로, 오는 8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 진도, 해남 등 전남 일대에서 펼쳐진다.

/이승원 기자

전남도청 갤러리 대관 신청하세요

지역 작가 대상 무료… 한국화·서양화·조각·사진 등 접수

전라남도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 도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도청갤러리 대관 신청을 받아 전시한다고 밝혔다.

대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다. 전남에 주소 또는 근무처를 두고 활동하는 작가의 한국화, 서양화, 조각, 사진 등 시각예술 전반의 작품을 신청받는다.

선정된 지역 예술인에게는 비용 부담 없이 작가(단체)당 3주에서 4주 정도 대관하며, 하반기 대관 기간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다.

대관을 바라는 개인이나 단체는 전남도 누리집 공고문(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신청서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문화예술과(061-286-5443)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청갤러리는 도청을 찾는 민원인과 일반 도민이 일상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도록 조성된 문화예술 전시공간이다.

본청(무안) 1층 로비와 동부지역본부(순천) 1층 로비에 각각 마련돼 연중 다양한 장르의 기획 및 대관 전시가 이어지고 있다.

노영환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도청갤러리는 청사 유휴공간을 활용해 예술과 도민이 가까워지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전시를 희망하는 지역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전혜정 기자

광주시, 해설사와 함께하는 특별한 도보여행 첫선

금도깨비극장길 등 4개 코스 운영… 11월까지 사전예약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관광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테마형 도보 해설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직접 코스를 구상하고, 광주의 역사·문화·예술 자원을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해설사의 생생한 현장 설명을 들으며 시민과 관광객이 광주의 숨은 매력을 도보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다.

광주시는 주요 관광지 18곳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상시 배치해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해설사가 직접 기획한 코스를 도보로 이동하며 해설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이번이 처음이다.

광주가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와 프로스포츠 중심지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해설프로그램은 광주의 정체성과 색다른 매력을 전달하는 뜻깊은 문화관광콘텐츠로 평가받고 있다.

도보해설은 총 4개 코스로 구성되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1시간30분이다.

▲금도깨비극장코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전일빌딩)~금남로공원~광주극장~도깨비골목 ▲오색고담길코스: 석서정~희경루~광주공원~광주향교~사직공원 ▲광주의리단길코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야외전시 석물~조씨정려~3·1운동탑~안중근숭모비~하서 김인후 상 ▲고박길코스: 김용학 고택~국립광주박물관 야외전시 석물~국립광주박물관 내부 전시관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장체험이자, 방문객에게는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해설사의 전문성을 살려 광주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일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